

『시진핑용전(習近平用典)』을 통해 본 중국 고전문학의 현대적 변용*

정진선**

<目 次>

1. 서론
2. 고전문학과 정치담화의 상호텍스트성
 - 1) 『시진핑용전』의 체제 및 구성
 - 2) 고전문학의 '인용'과 '권위'의 획득
3. 고전문학에서 국민교육의 텍스트로
 - 1) 가치관의 재정립과 고전문학의 소환
 - 2) 윤리 규범의 모델 제시
4. 결론

1. 서론

정치의 장(場)에서 말과 글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연설, 강연, 축사, 기념사 등 다양한 형태의 연설 활동을 통해 국정 운영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한다. 특히 각종 민감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데 정치담화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미국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식을 앞두고 "대통령이 선택한 문장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볼 것인지,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미래를 마주할 것인지 설계할 수 있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432).

** 서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록 한다”¹⁾고 언급한 바 있듯이, 정치 지도자의 말과 글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²⁾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연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책을 따로 두어 메시지를 총괄하는 데 역점을 둔다. 한국의 ‘연설비서관’,³⁾ 미국의 ‘스피치라이터(speech writer)’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수려한 문장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문담(文膽)’⁴⁾으로 기용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현대 중국에서는 ‘중앙정책연구실(中央政策研究室)’⁵⁾에서 정치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각종 문건을 기초하면서 연설문을 담당한다. 지도자들이 공공장소에서 하는 발언 행위는 크게 연강(演講), 강화(講話), 발언(發言), 지시(指示), 치사(致辭)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⁶⁾ 필자는 편의상 모두 ‘연설’로 통일하여 중국 정치담화(political discourse)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
- 1) 「오바마 스피치라이터들이 말하는 “대통령 연설문이란...”」 2016년 12월 22일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21033701>
 - 2) 이귀혜, 「한국 대통령들의 설득 수사학: 에토스·파토스·로고스 개념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8집, 2007; 권향원·최도립,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에 대한 연구: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 3) 노무현 정부 때 연설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원국은 『대통령의 글쓰기』(메디치미디어, 2014), 윤태영은 『대통령의 말하기』(위즈덤하우스, 2016), 양정철은 『세상을 바꾸는 언어: 민주주의로 가는 말과 글의 힘』(메디치미디어, 2018)을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인 출신의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현실 정치를 감성적 언어로 풀어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 4) 동한(東漢)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6년(30)에 반란군 고준(高峻)은 책사인 황보문(皇甫文)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쓸개(膽)를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며 결국 투항했다. 이때부터 문학적 재능과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권력자 밑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문담이라고 지칭했다. 현대 중국에서도 연설문을 전담하는 참모를 비공식적으로 ‘문담’이라고 부르는데, 장쩌민의 滕文生·王滙寧, 후진타오의 왕후닝·俞計劃 등이 대표적이다. 西隱, 『中國高層文膽』, 浙江人民出版社, 2008.
 - 5) 당중앙 관공실, 총서기 관공실, 국가주석 관공실 중앙정책연구실, 중앙편역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정책과 방안을 입안한다.
 - 6) 박병석은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연강’은 비교적 성대한 의식이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 ‘강화’는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이다. 전자는 연설 또는 강연, 후자는 담화로 번역된다. 박병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외교연설 중 중국 전통사상 인용의 수사 오류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4호, 2015, 182쪽.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역대 지도자들은 정치담화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했다.⁷⁾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연설, 강연, 외국 정상과 회담할 때 고전문학을 자주 인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경전 혹은 시문 구절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한다. 고전문학에 조예가 깊어 ‘문인(文人) 총리’로 불린 원자바오(溫家寶)는 공식 석상, 특히 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논어』, 『맹자』, 『관자』 등의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상황에 딱 들어맞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⁸⁾

시진핑은 제자백가, 역사서, 시, 사(詞), 산문, 소설 등 ‘고전문학’을 자주 인용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치담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주목할 현상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취임 후 발표된 발언, 지시, 서신 등의 글과 말을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아울러 고전문학에 조예가 깊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15년 2월 런민일보출판사(人民日報出版社)가 발간한 『시진핑용전(習近平用典)』이다.⁹⁾ 시 주석이 지난 27년 동안 발표한 연설, 회담, 저술 등에서 자주 인용한 고전 문구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고 국정운영 방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135개를 표제문으로 수록하고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용전』은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도자의 글쓰기와 말하기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정치담화에서 고전문학을 자주 인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주로 시를 활용한 외교 전략과 그것을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규일은 마오쩌둥부터 장쩌민, 후진타오가 외교 활동에서 ‘시’를 이용해 메시지를 예들러 전달하는 것에 주목하여 ‘한시(漢詩)외교’라는 용어를 제시한 뒤 50여 편의 시에 대해 그 함의를 고찰했다.¹⁰⁾ 특히 후진타오가 중국내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고전을 거의 인용하지

7) 『毛澤東選集』, 『毛澤東詩詞集』, 『鄧小平文選』, 『胡錦濤文選』(1-3) 등이 출간되었다.

8) 그가 인용한 고전 문구를 모아 『온문이야(溫文爾雅)』(汪龍麟·何長江 主編, 中國書報出版社, 2010), 『온고지금(溫古知今)』(孔健·李放, 武漢出版社, 2011)을 출간했다.

9) 2018년 5월에 시진핑의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148개의 고전 구절의 의미와 배경을 서술한 『시진핑용전』 제2집이 출간되었다.

않은 반면 외국을 방문할 때는 의도적으로 구사했다고 지적하며 한시외교에 내포된 전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시진핑 연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분석 틀인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어휘 선택의 문제를 고찰한 것이 대부분이다.¹¹⁾ 한편 박병석은 시진핑이 고전을 과도하게 인용하는 현상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전통사상의 활용을 통해 중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해 강력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지적했다.¹²⁾

필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되 연설문의 수사법에 주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진핑용전』의 분석을 통해 중국 정부가 정치담화에서 '고전문학'¹³⁾을 운용하는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대표 표제문으로 선정된 135개의 고전문구에 주목하여 빈도수와 의미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책의 출판 과정과 배경에 주목하여 고전문학이 문화정치적 장(場)에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용되고 있는가를 규명할 것이다.

2. 고전문학과 정치담화의 상호텍스트성

『시진핑용전』(이하 '『용전』'으로 지칭)은 '시진핑이 인용한 고전 구절'이라는 의미이다. '용전(用典)'이란 '전고(典故)를 사용하다'의 뜻으로, 과거 문헌의 구절을

10) 이규일, 『한시, 마음을 움직이다』, 리북, 2012, 13쪽.

11) 최형권·나민구는 2013년 3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연설문을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이정인은 2014년 7월 서울대학교 연설문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통적 수사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결합해 고찰했다. 최형권·나민구, 「시진핑 연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중국연구』 제60권, 2014; 이정인,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 연설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중국연구』 제63권, 2015.

12) 2013년 3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 연설부터 2015년 4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설에 이르기까지 총 20차례의 외교연설을 중심으로 중국 전통사상 인용의 수사 오류를 분석했다. 박병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외교연설 중 중국 전통사상 인용의 수사 오류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4호, 2015.

13) 여기에서 고전문학은 문학, 철학, 역사가 결합된 통섭의 글쓰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때로는 '고전'이라고 사용할 것이다.

인용하는 수사법이다.¹⁴⁾ 내용과 사상을 보다 풍부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중국 문인들이 글쓰기와 말하기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해 온 의사소통 방식이다. 필자는 『시진핑용전』의 체제와 구성, 고전을 인용하는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재의 담화와 과거의 고전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고찰하고, 나아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진핑용전』의 체제 및 구성

『용전』은 1982~2015년까지 시진핑이 발표한 정치담화를 13개의 항목에 따라 재배치하고 자주 인용한 고전 구절을 135개의 '표제문'으로 선정했다.¹⁵⁾ 체제는 인용된 구절이 연설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해설한 해독(解讀), 구절의 출처에 대해 설명한 원전(原典), 원전의 성격·의의·저자에 대해 풀이한 석의(釋義)로 구성된다.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진핑이 허베이성 정딩현(正定縣) 당부서기¹⁶⁾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1982년부터 저장성 당서기로 재직할 2007년에 이르기까지 『빈곤에서 벗어나다(擺脫貧困)』¹⁷⁾, 『실제적 상황에서 행동하고, 앞서서 걸어가자(幹在實處 走在前列)』¹⁸⁾, 『첸탕강으로 가는 새로운 말(之江新語)』¹⁹⁾ 등 기존에 발행된 출판물이

14) 용전은 용사(用事)라고도 한다. 유협(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 「사류(事類)」에서 “사례들은 무릇 문장의 바깥에 있다. 여러 사례를 근거하여 글의 의미를 증명하고, 옛일을 인용하여 현재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事類者, 蓋文章之外, 據事以類義, 援古以證今.)”라고 설명했다.

15) 135개의 표제문을 살펴보면, 선진시기가 54개로 가장 많고 송대 22개, 청대 17개, 한대 12개, 당대와 명대가 각각 11개의 순서이다. 선진시기 제자백가의 인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논어』 9회, 『예기』 6회, 『도덕경』 5회, 『맹자』·『주역』·『한비자』 각 4회, 『순자』·『관자』 각 3회, 『안자춘추』·『장자』·『상서』·『좌전』 각 2회, 『도덕경』·『묵자』·『국어』·『여씨춘추』 각 1회다.

16) 1982~1985년까지 시진핑이 허베이성 정딩현에서 재직 시에 발표한 연설, 문장, 서신 총 37편을 모아 『知之深·愛之切』로 출판했다.

17) 1988~1990년 푸젠성 닝더시(寧德市) 서기로 재직할 때 발표한 연설과 문장 29편을 수록했다. 2013년 8월 푸젠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당조(福建省食品藥品監督管理局黨組)는 이 책을 푸젠성 공산당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의 필독서로 지정했다.

18) 2002~2006년 저장성위원회 서기로 재직할 때 발표한 보고서, 연설, 지시, 저작 등을 수록했다.

다. 둘째,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2월에 이르기까지 공식 석상에서 한 각종 연설이다. 그 내용은 지도부의 통치 이념과 집권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크게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법치 국가 건설,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당과 인민과의 관계 제고,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 사회 건설이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 인용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는 「당의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공작 회의상에서의 강화(在黨的群眾路線教育實踐活動工作會議上的講話)」(2013. 6. 18.), 「청년들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青年要自覺踐行社會主義核心價值觀)」(2014. 5. 4), 「어려서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교육하고 실천한다(從小積極培育和踐行社會主義核心價值觀)」(2014. 5. 30.)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텍스트 | 출간연도 | 출판사 |
|--------------|------------------|-------------|
| 『擺脫貧困』 | 1992 초판, 2014 재판 | 福建人民出版社 |
| 『幹在實處 走在前列』 | 2006 초판, 2013 재판 | 中共中央黨校出版社 |
| 『之江新語』 | 2007 초판, 2013 재판 | 浙江人民出版社 |
| 『習近平談治國理政』 | 2014.6 | 外文出版社 |
| 『習近平總書記重要講話』 | 2014.12 | 人民出版社·學習出版社 |
| 『知之深·愛之切』 | 2015.12 | 河北人民出版社 |

위의 도표를 통해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 취임한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가 그의 정치담화를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장쩌민, 후진타오 등 이전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시진핑용진』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출판물을 분석 자료로 이용할 것이다.

런민일보편집부는 시진핑이 그동안 발표한 저서와 연설 가운데 국정운영 방침

19) 2003~2007년 저장성 서기로 재직하면서 시진핑은 '저신(哲欣)'이라는 필명으로 「저장일보(浙江日報)」 「之江新語」 칼럼에 총 232편을 투고한 바 있다. '之江'은 저장성의 깃줄인 첸탕강으로 가다는 뜻이다. 그 누구도 용솨음치는 첸탕강의 기세를 꺾을 수 없듯이 저장성도 개혁의 물결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저장일보」가 그의 기고문을 모아 출판한 것이 바로 『之江新語』이다.

20) 『習近平談治國理政』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시진핑의 총 79편의 연설을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용진』에 수록된 연설과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선정한 뒤 경민(敬民), 위정(爲政), 입덕(立德), 수신(修身), 독행(篤行), 권학(勸學), 임현(任賢), 천하(天下), 염정(廉政), 신념(信念), 창신(創新), 법치(法治), 변증(辨證) 등 총 1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재배치’했다.

| 항목 | 개수 | 항목 | 개수 |
|--------|-----|--------|------|
| 경민(敬民) | 10개 | 위정(爲政) | 14개 |
| 입덕(立德) | 11개 | 수신(修身) | 12개 |
| 독행(篤行) | 9개 | 권학(勸學) | 15개 |
| 임현(任賢) | 9개 | 천하(天下) | 13개 |
| 염정(廉政) | 11개 | 신념(信念) | 8개 |
| 혁신(創新) | 8개 | 법치(法治) | 7개 |
| 변증(辨證) | 8개 | 총 | 135개 |

경민 등 13개의 항목은 대부분 『논어』, 『좌전』, 『대학』 등 고전의 편명 혹은 구절 중에서 현재에 유효하다고 판단된 통치 이념을 표제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위정’은 『논어』, ‘수신’은 『목자』, ‘권학’은 『순자』의 편명이다. ‘독행’은 『예기』 「유행(儒行)」의 “儒有博學而不窮, 篤行而不倦”, ‘임현’은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의 “任賢勿貳, 去邪勿疑”, ‘염정’은 『안자춘추(晏子春秋)』 「문하(問下)」의 “景公問晏子, 廉政而長久, 其行何也?”, ‘입덕’은 『좌전(左傳)』 「양공24년(襄公二十四年)」 “太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 雖久不廢, 此之謂不朽”에서 유래했다. 13개 항목 가운데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제시한 ‘위정’, 관료사회의 청렴함을 강조한 ‘염정’, 법과 제도를 역설한 ‘법치’는 시진핑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침으로,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항목, 표제문, 정치담화가 어떻게 재배치, 재편집되었는가를 살펴보자.

| 항목 | 표제문 | 정치담화 |
|----|---|---|
| 독행 | 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 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 (『道德經』「第六十三章」) | 『從政雜談』(『擺脫貧困』)(1990.3) 『心無百姓莫爲“官”』(『之江新語』, 2004.1) 『十八屆三中全會閉幕時的講話』(2013.11) 『青年要自覺踐行社會主義核心價值觀』(2014.5) |

『도덕경』 제63장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큰일을 이루려면 사소한 것부터 행동에 옮겨야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부터 시작하고,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를 독행편의 5번째 표제문으로 선정했다. 이 구절은 1990년 「從政雜談」, 2004년 「心無百姓莫爲“官”」, 2013년 「十八屆三中全會閉幕時的講話」, 2014년 「青年要自覺踐行社會主義核心價值觀」 등 연설에서 보인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화한 개별적 정치담화가 ‘독행’편에 배치됨에 따라 2015년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은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양전우(楊振武) 런민일보 사장이 『용전』 서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런민일보」는 시진핑의 주요 연설에 담긴 정신을 깊이 배우고 그의 핵심적인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 그가 주요 연설에서 인용한 고전 명문구를 제시하고 고전의 배경과 함께 오늘날 중국에 어떤 현실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풀이했다.”²¹⁾ 이를 통해 『용전』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고전을 인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상호텍스트’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기호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모든 텍스트는 인용구들의 모자이크로 구축되며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가장 제한된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란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텍스트와 텍스트, 혹은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를 가리킨다.’²²⁾ 그렇다면 중국에서 고전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 교차하며 상호텍스트성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21) 『시진핑용전』 서문.

22) 네이버 문학비평용어사전 참조.

23) 용전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葛紅, 「互文性與用典之辯」, 『求索』, 2009年第9期; 余小平, 「基於互文性理論的用典研究」, 『甘肅聯合大學學報』, 2011年第5期.

2) 고전문학의 ‘인용’과 ‘권위’의 획득

‘인용’은 비유, 대구, 반문 등과 더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주 사용되는 수사법으로, 고전 구절을 삽입해 내용을 전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²⁴⁾ 중국 학자들은 인용에 대해 크게 문장의 출처를 밝히고 구절을 사용하는 ‘명인(明引)’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활용하는 ‘암용(暗用)’으로 분류한다.²⁵⁾ 먼저, 직접 인용에 해당하는 명인을 살펴보자. 시진핑은 2014년 6월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지도자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중국 역사에서 수신입덕과 관료의 청렴함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수많은 사상가들이 제창한 정치주장이자 정직한 사대부들이 평생토록 지키고자 했던 준칙이었습니다.……공자가 말하길 “정치란 바른 것이다.”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아랫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한다. 통치자가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고자 하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위정자의 필요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²⁶⁾

“공자가 말했습니다”라며 문장의 출처를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어』「안연(顏淵)」편의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政者，正也。子師以正，孰敢不正？”과 「자로(子路)」편의 ‘子曰：“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雖令不從。”에서 일부 구절을 직접 인용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활용하는 암용을 사용했다. 시진핑은 2014년 5월 4일 베이징 대학에서 교수, 학생들과의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발전목표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

24) 이정인, 앞의 논문, 232~234쪽.

25) 羅積勇, 『用典研究』, 武漢大學出版社, 2005.

26) [위정] 「領導幹部要認真真學習 老老實實做人 幹幹淨淨幹事」: 在我國歷史上, 注重修身立德、爲官廉潔, 是許多思想家倡導的政治主張, 也是一些正直的士大夫終身恪守的爲官準則. ……孔子說: “政者, 正也.”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他把“欲而不貪”作爲爲政的必備條件.

해서 반드시 방법의 자신, 이론의 자신, 제도의 자신을 강화하고 “천 번 깎이고 만 번 부딪쳐도 더욱 단단해져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개의 자신’은 핵심가치관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²⁷⁾

시진핑은 청나라 정섭(鄭燮)의 제화시(題畫詩) 「죽석(竹石)」 가운데 3,4구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말인 것처럼 개혁을 추진할 때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당 간부들이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용전』에서는 이렇게 고전 구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용을 전개하는 암인의 사례가 적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135개의 표제문 중 일부는 고전 구절을 의도적으로 조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정] “臨大事而不亂, 臨利害之際不失故常”처럼 작가가 서로 다른 시기에 쓴 작품 구절을 나열한 경우이다. 시진핑은 1990년 3월 청년 간부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했다.

일단 결단을 내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얻기 전에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에 직면해 당황하지 말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간부들은 일시적으로 알가알부하며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한 순간의 곡절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시대적 풍조를 따라서도 안 되고, 조류에 영합해서도 안 됩니다.”²⁸⁾

“큰일에 직면해서도 당황하지 말고,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송나라 소식(蘇軾)이 쓴 두 편의 작품에서 인용한 것이다. 전자는 인종(仁宗) 가우(嘉祐) 5년(1060) 소식이 과거시험에서 쓴 답안지 「책략(策略)」에서, 후자는 한림학사(翰林學士) 지제고(知制誥)로 재직 시 인종을 대신해 작성한

27) [신념] 「青年要自覺踐行社會主義核心價值觀」: 我說這話的意思是, 實現我們的發展目標, 實現中國夢, 必須增強道路自信、理論自信、制度自信, “千磨萬擊還堅勁, 任爾東風西北風”, 而這“三個自信”需要我們對核心價值觀的認定作支撐.

28) 一旦作出決議, 在解決問題過程沒有結束之前, 不作主體更改. “臨大事而不亂”, “臨利害之際不失故常”, 青年幹部要不為一時議論所動, 不為一時揚抑所惑, 不追趕時尚, 不迎合潮流. 「從政雜談」, 『擺脫貧困』27쪽.

「진동지섬주제(陳侗知陝州制)」에서 취했다. 시진핑은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심을 유지해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소식의 구절을 빌어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 설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전과 현대 작품을 조합한 경우이다. 2012년 11월 29일 시진핑은 ‘부흥의 길’ 전시 관람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화민족의 어제는 “힘준한 관문이 진정 철용성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 이후 중화민족이 겪은 고난과 치른 희생은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듭니다.……중화민족의 오늘은 ‘인간의 바른 길은 상전이 벽해되어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중화민족의 내일은 “거센 바람 타고 물결 헤쳐 나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²⁹⁾

마오쩌둥의 ‘雄關漫道眞如鐵’과 ‘人間正道是滄桑’로 중화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표현하고, 이백(李白)의 시 ‘長風破浪會有時’로 중국의 내일을 묘사했다.³⁰⁾ 마오쩌둥이 1935년 2월 홍군(紅軍)을 이끌고 로우산관(婁山關)을 함락시킨 영웅적 기개, 1949년 4월 21일 인민해방군 100만 명을 이끌고 장강(長江)을 건너 이틀 뒤 23일에 난징(南京)을 함락했을 때의 환희, 당나라 이백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독려한 구절을 유기적으로 조합했다. 이렇게 “힘준한 관문이 진정 철용성 같고, 인간의 바른 길은 상전이 벽해가 되어도 영원할 것이니 거센 바람타고 물결 헤쳐 나갈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며 굳건한 신념을 생동적으로 표현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시진핑은 연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전을 인용해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표명하고 호소력을 높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통시적으로 공인한 고전 구절을 정치담화에서 활용하면 공시적인 의미를 재구성

29) [위정] 中華民族的昨天, 可以說是“雄關漫道眞如鐵。”近代以後, 中華民族遭受的苦難之重、付出的犧牲之大, 在世界歷史上都是罕見的……中華民族的今天, 正可謂“人間正道是滄桑。”……中華民族的明天, 可以說是“長風破浪會有時。”

30) ‘雄關漫道眞如鐵’은 마오쩌둥의 사 「憶秦娥·婁山關」, ‘人間正道是滄桑’은 마오쩌둥의 7언 율시 「人民解放軍占領南京」, ‘長風破浪會有時’는 이백의 「행로난(行路難)」 제1수에서 취했다.

하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사회에서 고전의 인용은 현재의 담화와 과거의 고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권위'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다.

여기에서 시진핑이 인용한 고전 구절은 그가 독창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 지도자와 지식인의 전통적인 의사소통 수법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내외정책과 사상적 기초를 입안해 온 이전 시기의 싱크탱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³¹⁾ 그 이면을 살펴보면 왕후닝, 리수레이(李書磊), 류허(劉鶴) 등 문답들의 특징과 관련이 깊다. 3대째 중앙정책 연구실 주임을 맡고 있는 왕후닝³²⁾, 중국 고전과 역사에 통달한 천재로 평가받는 리수레이³³⁾ 등은 모두 학자 출신의 관료로서 전통문화에 해박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연설의 특징을 한 개인의 성향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3. 고전문학에서 국민교육의 텍스트로

중국 정부는 『용전』의 출간을 계기로 고전문학을 '우수한 전통문화'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데 활용하고 동시에 윤리와 규범을 제공하는 국민교육의 텍스트로 전파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31) 박병석, 앞의 논문, 194쪽.

32) 푸단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1995년부터 중앙정책연구실에서 약 25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장쩌민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입안한 '책사'이다. 제18기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되었다.

33) 베이징대에서 중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중앙당교에서 중국 고전과 역사를 가르치다 시진핑에게 발탁되어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다. 현재 중앙기율위원회 부서기, 중국기율감찰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1) 가치관의 재정립과 고전문학의 소환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대를 반영하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작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학술계에서도 고전을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이자 인류문명의 정신적 자산으로 상정하고 ‘전통전략문화자원’, ‘선진(先秦)국가관계철학’ 등으로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권기영이 지적하듯이 전통문화의 장(場)에서 국가와 사회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의 정립이라는 문제를 놓고 때로는 서로 결합하고 때로는 상호 경쟁하면서 국학(國學) 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³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궤를 같이하여 시진핑은 공식 석상에서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社會主義核心價值觀)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중화민족이 수년 년 간의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생존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민족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정신적 추구, 정신적 특징, 정신적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노자, 공자, 맹자, 장자 등의 성현들이 집대성한 관념들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오늘날 중화민족이 계속 전진하려면 시대 요건에 따라 우리의 민족정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 특히 그 속에 함축된 전통미덕을 계승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우리가 제창하는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프로정신, 성실, 친절 등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고대 성현들의 사상, 선열 지사들의 숙원, 혁명 열사들의 이상이 구현된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생활에 대한 각 민족들의 열망이 기탁되어 있습니다.³⁵⁾

34) 권기영, 『마르크스와 공자의 화해』, 푸른숲, 2016.

35) 「어려서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양성하고 실천한다(從小積極培育和踐行社會主義核心價值觀)」: 爲甚麼中華民族能够在幾千年的歷史長河中頑強生存和不斷發展呢? 很重要的一个原因, 是我們民族有一脉相承的精神追求、精神特質、精神脉絡.……老子、孔子、孟子、庄子等先哲歸納的一些觀念也一直延續到現在.……今天, 中華民族要繼續前進, 就必須根據時代條件, 繼承和弘揚我們的民族精神、我們民族的優秀文化, 特別是包含其中的傳統美德. 我們倡導的富強、民主、文明、和諧, 自由、平等、公正、法治, 愛國、敬業、誠信、友善的社會主義核心價值觀, 體現了古聖先賢的思想, 體現了仁人志士的夙願, 體現了革命先烈的理想, 也寄托着各族人民對美好生活的嚮往.

전통문화에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사실 2000년대부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전면에 내세운 채 전개되고 있다.³⁶⁾ 시진핑이 총서기에 선출된 2012년 11월 제18차 전국대표대회보고에서 처음으로 제창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은 사회공익, 직업윤리, 도덕의식,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제로 표상되었다.³⁷⁾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이용하여 가치관을 재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 당교 개교 80주년 경축 행사 및 2013년 봄학기 개학식에서 한 발언을 살펴보자.

지도간부는 각종 문학, 역사 지식과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도 학습해서 지혜를 쌓고 심신을 길러야 합니다. 넓고 심오한 중국 전통문화 속에 담긴 각종 사상의 정수를 배우고 익힌다면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지도간부는 문학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합니다. 문학 감상 능력과 심미 능력을 제고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고상한 생활의 정취를 길러야 합니다. 많은 선배 혁명가들은 깊은 문학적 소양을 지녔으며, 시사가부 방면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성패와 득실, 흥망성쇠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시를 공부하면 정서를 함양하고 뜻을 고양하며 우아한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윤리를 공부하면 염치를 알고 영욕과 시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³⁸⁾

시진핑은 문화, 역사, 철학 등 전통문화에 담긴 인문정신, 윤리도덕이 세계를

- 36) 장쩌민은 2001년 「공민도덕건설실시강요(公民道德建設實施綱要)」를 시행하고, 후진타오는 2006년에 '사회주의영욕관(社會主義榮辱觀)'과 2007년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社會主義核心價值體系)'를 주장했다.
- 37) 2013년 12월 중앙관공청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에 관한 의견(關於培育和實踐社會主義核心價值觀的意見)」, 2014년 5월 베이징시위원회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교육과 실천에 관한 시행의견(關於培育和實踐社會主義核心價值觀的實施意見)」을 공포했다.
- 38) 「학습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依靠學習走向未來)」: 各種文史知識, 中國優秀傳統文化, 領導幹部也要學習, 以學益智, 以學修身. 中國傳統文化博大精深, 學習和掌握其中的各種思想精華, 對樹立正確的世界觀、人生觀、價值觀很有益處.……領導幹部還應該了解一些文學知識, 通過提高文學鑒賞能力和審美能力, 陶冶情操, 培養高尚的生活情趣. 許多老一輩革命家都有很深厚的文學素養, 在詩詞歌賦方面有很高的造詣. 總之, 學史可以看成敗、鑒得失、知興替; 學詩可以情飛揚、志高昂、人靈秀; 學倫理可以知廉耻、懂榮辱、辨是非.

올바로 인식하고 통치이념에 유용한 지침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2014년 5월 4일 베이징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베이징대 인문학원이 우수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음을 극찬하고, 아울러 ‘국학대사(國學大師)’로 추앙받는 탕이제(湯一介) 철학과 교수를 예방했다. 같은 해 9월 25일에는 국가 주석의 자격으로 공자탄생일 제사에 최초로 참석해서 「공자탄생 2565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및 국제유학연합회 제5회 회원대회개막식에서의 강화」를 발표했다.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시진핑의 일련의 행보는 애국주의와 결합하여 제2의 ‘국학열(國學熱)’³⁹⁾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4년 5월 4일 베이징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의 좌담회에서 어릴 때부터 고전을 학습해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일명 ‘단추 교육관’을 제시했다.⁴⁰⁾ 같은 해 9월 10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과서에서 고대 경전의 시가와 산문을 제외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며 중국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은 큰 비애로 학생으로 하여금 경전을 배우도록 해 중화민족의 문화유전자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이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된 후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재에서 전통문화 부분을 강화하고 시, 산문 등 고전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⁴¹⁾

이처럼 시진핑 정부가 고전문학을 소환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정립하고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저서가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⁴²⁾ 『평천하: 중국고전 통치의 지혜(平天下: 中國古典治理智慧)』를 살펴보

39) 1990년대 이후 중국사회의 전통문화 열풍을 지칭하는 단어다. 중국 사회의 국학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이철승, 「현대 중국사상계에 나타난 ‘중국학열’과 신중화사상」, 『중국학보』 제54집, 2010; 정보은, 「현대중국 “국학열”의 사회체계형성으로서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 『중소연구』 제36권 제3호, 2012.

40) 「청년들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41) 베이징시 교육계는 2015년 신학기부터 고전시가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릴 시가는 지금의 6~8편에서 22편으로 확대되었다.

42) 시진핑의 전통문화를 통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정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鄧斌, 「中華優秀傳統文化與社會主義核心價值觀建設」,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6; 李海晶, 「習近平的傳統文化觀研究」, 南昌大學 박사학위논문, 2016; 唐興輝·朱悅桐, 「習近平傳統文化觀研究的回顧與展望」, 『讀天下』 2016年18期; 방호범, 「習近平“用典”中

면, 『논어』, 『맹자』, 『시경』, 『주역』, 『춘추』, 『사기』 등의 고전에서 140여 개의 구절을 선택해 수신(修身), 위학(爲學), 민본(民本), 관덕(官德), 치리(治理), 천하(天下) 6개 항목으로 나누었다.⁴³⁾ 이를 통해 고전이 시대정신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통치이념을 내재화하는 데 필요한 실천 강령과 행동 지침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윤리 규범의 모델 제시

시진핑 정부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공산당 간부들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사상교육을 강조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역사상 모범적 관료 혹은 개혁가로 평가받은 인물들을 윤리 규범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다. 『용진』을 살펴보면, 공자, 순자, 관자, 구양수(歐陽修), 사마광(司馬光) 등이 소환되어 시대적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위정, 권학, 염정, 변증에서 소식(蘇軾, 1037~1101)이 6차례로 최다 선정되었다.

| 항목 | 표제문 | 출처 |
|----|--|------------------|
| 위정 | 爲國不可以生事, 亦不可以畏事. | 『因擒鬼章論西羌夏人事宜札子』 |
| | 天下之患, 最不可爲者, 名爲治平無事, 而其實有不測之憂. 坐觀其變而不爲之所, 則恐至于不可救. | 『晁錯論』 |
| | 臨大事而不亂, 臨利害之際不失故常 | 『策略第四』, 『陳侗知陝州制』 |
| 권학 | 腹有詩書氣自華. | 『和董傳留別』 |
| 염정 | 物必先腐, 而後蟲生. | 『范增論』 |
| 변증 | 不識廬山真面目, 只緣身在此山中. | 『題西林壁』 |

그렇다면 왜 소식을 이렇게 집중 조명하는 것일까? 소식은 급진적인 개혁을 주

的傳統儒學觀研究』, 『퇴계학논총』 제29집, 2017.

43) 人民日報海外版學習小組, 『平天下: 中國古典治理智慧』, 人民出版社, 2015. 한편 『平天下: 中國古典政治智慧』(人民日報海外版學習小組, 人民出版社, 2016)도 이와 유사한 체례로 이루어졌다.

장한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에 대항하다 여러 차례 유배를 갔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언제나 백성의 입장에서 행동했다. 시진핑은 공식 석상에서 「조착론」의 “치국에 가장 어려운 점은 겉으로 안 보이는 내부 문제이며 이를 방관해 시기를 놓쳐 해결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구절을 자주 인용하며 개혁 의지를 천명하곤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이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고 만두집을 찾는 등 서민행보를 계속하는 것도 소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⁴⁴⁾

주지하듯이 시진핑 정부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주요 국정방침으로 제시했다. 『용전』 ‘법치’에는 역사상 법령에 의해 통치를 시행하고자 한 인물들을 선정했다.

| 항목 | 표제문 |
|----|---|
| 법 | 國無常強, 無常弱. 奉法者強則國強, 奉法者弱則國弱. (『韓非子』「有度」) |
| | 立善法于天下, 則天下治; 立善法于一國, 則一國治. (王安石「周公」) |
| | 道私者亂, 道法者治. (『韓非子』「詭使第四十五」) |
| | 天下之事, 不難於立法, 而難於法之必行. (張居正「請稽查章奏隨事考成以修實政疏」) |
| 치 | 法令既行, 紀律自正, 則無不治之國, 無不化之民. (包拯「上殿札子」) |
| | 治國者, 圓不失規, 方不失矩, 本不失末, 爲政不失其道, 萬事可成, 其功可保. (諸葛亮「便宜十六策」「治亂」) |
| | 法立, 有犯而必施; 令出, 唯行而不返. (王勃「上劉右相書」) |

7개의 표제문은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면 규율과 기강은 저절로 잡히고,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의법치국의 ‘전범’으로 한비자, 제갈량, 왕발, 왕안석, 포승 등을 채택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했다. 명나라 신종(神宗) 때 재상을 역임한 장거정(張居正)의 경우, 약 10여년 동안 법령을 정비하고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지만 그동안 실패한 개혁가로 평가되었다. 『용전』에서는 장거정에 대해 부패한 관료 집단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호구조사와 토지측량을 단행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44) 「韓媒：習近平治國思想受宋代改革家蘇軾影響大」, 2015.3.3. 참조.

http://www.chinadaily.com.cn/interface/toutiao/1138561/2015-3-3/cd_19704590.html

경감시켰음을 부각시켰다. 특히 개인의 안위에 연연하지 않고 관리들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고성법(考成法)’을 시행하며 개혁의 기치를 내건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⁴⁵⁾ 이처럼 과거의 모범적인 인물들을 소환하는 것은 부정부패와 의법치국 등 각종 개혁정책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당 간부 및 관료들을 설득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교육하는 윤리 텍스트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시진평용전』은 중국 지도자의 글쓰기와 말하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고 아울러 시진핑 정부의 국정방침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시진핑은 연설, 강연, 외국 정상들과 회담 등 정치담화에서 시, 사, 산문, 소설, 희곡 등 고전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를 건네 마음의 뜻을 표현한다’는 중국의 전통을 계승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용한 전략이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필자는 고전문학과 정치담화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펴보았다. 『용전』의 체제와 구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경민, 위정, 입덕, 수신, 독행, 권학, 임현, 천하, 염정, 신념, 창신, 법치, 변증 13개 항목에 배치된 135개 표제문의 빈도수와 의미를 고찰했다. 아울러 표제문과 연설문을 중심으로 명인과 암인으로 나누어 시진핑이 고전을 인용하는 방식과 경전 구절을 새롭게 조합하여 의미를 구축하는 양상을 파악했다.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정치담화에서 고전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공인’된 텍스트 가운데 필요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견해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음을 제시하여 ‘권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정부가 고전을 우수한 전통문화이자 인류문명의 귀중한 정신적 자

45) 『시진평용전』, 274쪽.

산으로 간주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전파하는 데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찰했다. 통치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진핑은 공식 석상에서 고전에 담긴 인문정신과 도덕이념을 설파하여 관료집단과 국민들에게 윤리적 모델을 제시했다. 한비자, 제갈량, 소식, 왕안석, 장거정 등 역사적으로 모범적인 관리나 개혁가를 집중 조명하여 시대적 역할을 새롭게 부여했는데, 그 이면에는 부정부패와 의법치국 등 주요 국정 정책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반발하는 세력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학술계는 『용전』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시진핑의 정치담화 관련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간하는⁴⁶⁾ 등 고전문학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15년 4월 중앙당교는 국민들이 시진핑의 연설과 저서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중국(學習中國)’⁴⁷⁾ 앱(APP)을 출시했다. 뉴스, 실경지도, 지식지도, 시아저씨 어록, 전문가 해설, 평론, 전자책, 이론문장, 중점논술, 시아저씨 일화, 인용 시문 등 9개 섹션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전문학에 정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로서 시진핑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⁴⁸⁾

중국은 고전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자에게는 윤리 규범의 모델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도덕적 자질을 교양의 잣대로 평가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젠 중국 사회에서 고전문학은 정치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양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길(中國道路)’을 걸어갈 것이며 대내외적으로 ‘문명중국’과 ‘문화자신(文化自信)’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⁴⁹⁾ 따라서 우리는 고전문학을 매개로 애국주의와

46) 陳錫喜의 『平易近人—習近平的語言力量』(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4), 張芬之의 『習大大說—我們如何讀經典』(中國時代出版公司, 2015)가 있다.

47) ‘학습중국’은 중국을 배우다, 시진핑의 중국을 배우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48) 중국 사회에서 『용전』이 제2의 『마오주석어록(毛主席語錄)』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49) 박병석은 시진핑이 외교 연설문에서 중국 고전을 ‘과잉 인용’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 또는 상대방에 대한 강요라는 ‘의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앞의 논문. 이규일은 중국 정부가 외교의 장에서 시를 비롯한 고전을 활용하는 현상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문화적 국력을 강조하는 전략이 깔려있다고 보았다. 이규일, 「중국 한시외교의 문화적

민족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중국의 과도한 '국학열'이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넘어 문화우월주의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⁵⁰⁾

〈參考文獻〉

권기영, 『마르크스와 공자의 화해』, 푸른숲, 2016.
 권항원, 최도립,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에 대한 연구: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김규환, 『시진핑 시대 중국의 파워엘리트』, 서해문집, 2013.
 박병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외교연설 중 중국 전통사상 인용의 수사 오류 분석」, 『한국 정치학회보』 제49집 제4호, 2015.
 방호범, 「習近平“用典”中的傳統儒學觀研究」, 『퇴계학논총』 제29집, 2017.
 시진핑 저, 차혜정 역,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와이즈베리, 2015년.
 이규일, 「중국 한시외교의 문화적 성격」, 『동북아문화연구』 제30집, 2014.
 이규일, 『한시, 마음을 움직이다-중국의 한시외교』, 리북, 2012.
 이정인,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 연설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중국연구』 제63권, 2015.
 인민일보 평론부 지음, 김락준 옮김, 『시진핑을 통해 진짜 중국을 만나다』, 가나출판사, 2016.
 장편즈 엮음, 원혜경 번역, 『시진핑은 왜 고전을 읽고 말하는가』, MBC C&I, 2016.
 조경란,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 문화-신보수주의의 출현과 유학의 재조명」, 『중국근현대사 연구』 제40집, 2008.
 _____, 「현대중국의 유학부흥과 '문명제국'의 재구축 -국가 유학 지식인」, 『시대와 철학』 제23호, 2012.
 _____, 『국가, 유학, 지식인: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책세상, 2016.

성격」, 『동북아문화연구』 제30집, 2014, 220쪽.
 50)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조경란은 중국 정부가 고전을 앞세워 민주와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채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가치를 선전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조경란,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 문화-신보수주의의 출현과 유학의 재조명」,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 2008; 조경란, 「현대중국의 유학부흥과 '문명제국'의 재구축 -국가 유학 지식인」, 『시대와 철학』 제23호, 2012; 조경란, 『국가, 유학, 지식인: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책세상, 2016.

- 천시시 편, 박영인 역, 『시진핑의 말: 친근함의 힘』, 에세이, 2015.
- 최형권, 나민구, 「시진핑 연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중국연구』 제60권, 2014.
- 陳錫喜, 『平易近人一習近平의 語言力量』,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4.
- 鄧斌, 「中華優秀傳統文化與社會主義核心價值觀建設」,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6.
- 葛紅, 「互文性與用典之辯」, 『求索』, 2009년 9월호.
- 國務院新聞辦公室會同中央文獻研究室·中國外文局, 『習近平談治國理政』, 外文出版社, 2014.
- 李海晶, 「習近平的傳統文化觀研究」, 南昌大學 박사학위논문, 2016.
- 羅積勇, 『用典研究』, 武漢大學出版社, 2005.
- 人民日報出版部, 『習近平用典』, 人民日報出版社, 2015.
- 唐興輝·朱悅桐, 「習近平傳統文化觀研究的回顧與展望」, 『讀天下』 2016년 18월호.
- 西隱, 『中國高層文膽』, 浙江人民出版社, 2008.
- 習近平, 『擺脫貧困』, 福建人民出版社, 1992 초판, 2014 재판.
- 習近平, 『幹在實處 走在前列: 推進浙江新發展的思考與實踐』,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06 초판, 2013 재판.
- 習近平, 『之江新語』, 浙江人民出版社, 2007 초판, 2013 재판.
- 余小平, 「基於互文性理論的用典研究」, 『甘肅聯合大學學報』, 2011년 5월호.
- 張芬之, 『習大大說—我們如何讀經典』,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Transfiguration i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through *Allusions of Xi Jinping*

Jung, Jin-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is transfigured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tics with focusing on the publishing process and its background of *Allusions of Xi Jinping*. Until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Chinese government began to explore ways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the

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widespread corruption among officials, taking the human tradition as ‘now, here’ and encourages individual ethics. It is fully expanded the cultural politics through the classical literature by the Chinese government. I would like to consider a surface that has been used as a mechanism to classic literature to educate the mor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through the *Allusions of Xi Jinping*.

First, I carefully examined the system and its contents of *Allusions of Xi Jinping* and analyzed the intertextuality between classical literature and political discourse. I have grasped the meaning of constructing a new combination of the method of citing the Xi Jinping classics centering on the heading sentence and speech and the scriptures. The reason why Chinese leaders, as represented by Xi Jinping, enjoys using classical literature in political discourse is that the quotation of the necessary poetry in the text that is “officialized”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acquire “authority” by presenting that there is a “basis for”. Secondly, we analyzed the way i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uses the classics to inject governance ideology and ethics norms by using them as a mechanism of national personality education and moral educ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overnance, Xi Jinping introduced a moral model to the bureaucratic group and the public by explaining the humanistic spiritual virtue embodied in the classics at the official seats. Xi Jinping has given a new role to the era by choosing exemplary management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re is a willingness to persuade the opposing forces against government policies.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China by understanding various aspects of cultural politics using the classics of Chinese government.

Key words: Allusions of Xi Jinping, Cultural Politics,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Transfiguration, Ethical Norms, Intertextuality

이 논문은 2018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